

금호타이어 도급기업 직장폐쇄 단행

비정규직 노조 파업 맞서 총 300여명 ... 임금 체불에 상여금 삭감 대응

금호타이어의 도급기업들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도급기업 13곳은 5월8일 오전 7시를 기해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해 있는 300여명에 대해 사업장내 출입금지 및 직장폐쇄 조치했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의 직장폐쇄 등에 반발해 곡성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이후 도급기업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상여금을 200% 삭감하자 4월27일부터 광주, 곡성공장에서 부분파업을 벌여왔으며, 4월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은 환경미화원, 경비원, 제품검사원 등 300여명에 이른다.

원청기업인 금호타이어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배식과 청소업무 등을 처리하는 한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0>